

“영재의 판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김 수 용

(한국과학기술원)

○ 영재아의 판별에 관한 논문에서 제시한 이재신 교수께서 제시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즉, 영재 유형별 판별 방안의 계속적 연구사업이 제도권 교육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도입되어야 한다.

○ 영재의 특성

추상적 사고, 추리, 끈덕짐, 방심 않고 예리하게 보는 관찰, 창의, 비판적 판단 등에 뛰어난 아동.

○ 영재교육의 필요성

1. 언어 기능

Broca 언어 중추운동성 언어 중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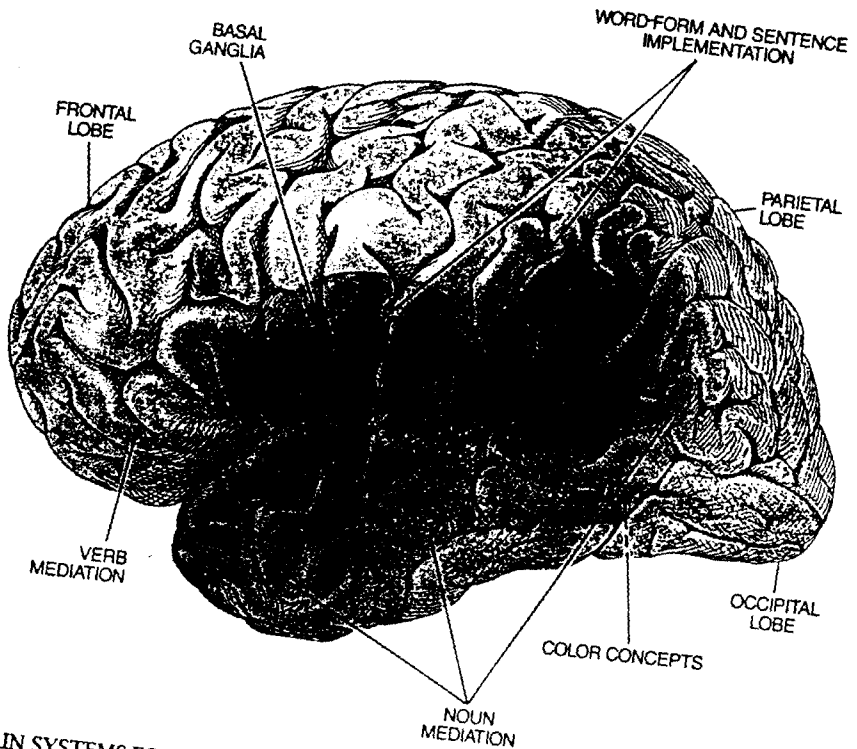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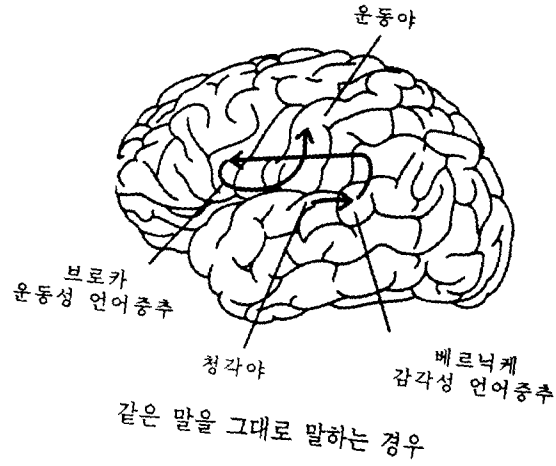
Wernicke 언어 중추감각성 언어 중추

말 → 청각기관 → 청각야 → Wernicke 언어 중추 : “언어로 이해”

↓

말로표현 : 턱, 성대, 목 ← Broca 언어 중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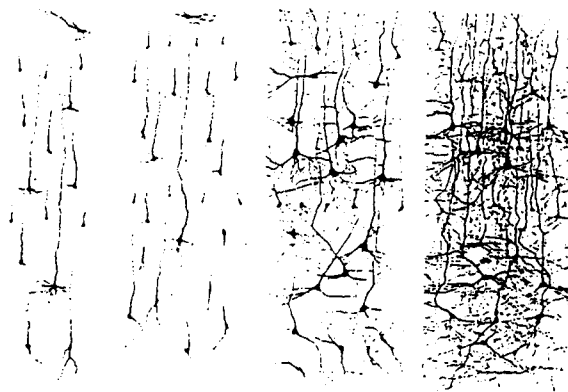
태아는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어머니가 말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다.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중추가 왼쪽 뇌로 이미 태아때부터 집중된다. 그 결과 출생후 언어기능이 발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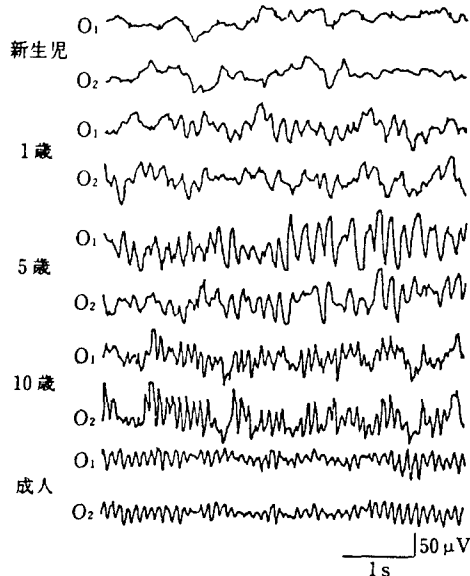
BRAIN SYSTEMS FOR LANGUAGE in the left hemisphere include word and sentence-implementation structures and mediation structures for various lexical items and grammar. The collections of neural structures that represent the concepts themselves are distributed across both right and left hemispheres in many sensory and motor regions.

2. 연령에 따른 뇌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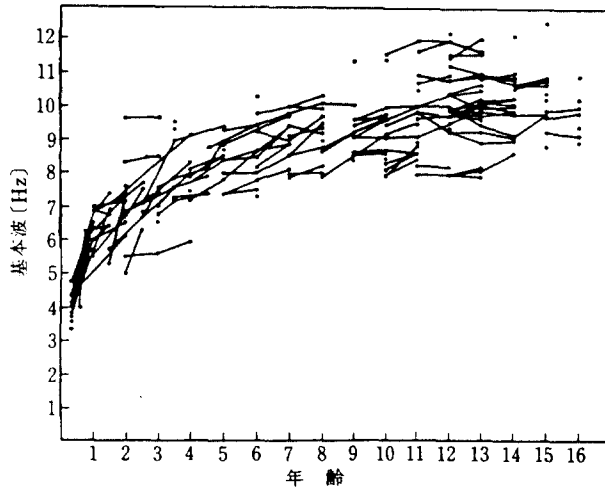
뇌 신경 세포의 수는 변하지 않지만, 신생아기로부터 아동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뇌신경 세포간의 신경섬유 연락망은 급격하게 발달한다. 따라서 뇌파의 주파수와 진폭도 변화한다.



新生児 生後1か月 生後6か月 生後2年
 人の大脳皮質の神経線維の連絡網の発達
 (細胞は増えないが, 神経線維網が発達する)



1 s
 50 μV
 年齢による脳波の変化



年齢と基本波の関係 (Lindsley, 1939)